

# Abstrac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특별세션)

김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한국의 녹색해운항로 현안과 정책

**키워드:** 녹색해운항로, 온실가스감축, 친환경연료, 녹색해운항로전략항만

최근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IMO는 2050년 순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 감축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이니셔티브는 2022년 22건에서 2024년 초 57건으로 급증하는 등 국제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산-시애틀 항로를 비롯해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 등과 협력하며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연료의 높은 비용, 벙커링 및 저장시설 부족, 기술 및 안전 규제 미비, 대·중소 선사 간 격차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연료 전환과 인프라 투자, 국제표준 대응에 필요한 장기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종합 지원체계와 다층적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법제화, 자원 확보와 기금 조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혁신기술 실증, 글로벌 협력 얼라이언스 구축, 그리고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 해법으로 제시된다. 본 발표는 이러한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해운의 탈탄소 전환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